

그 사람 지금은

(12) 고귀남 前 국회의원

■ 전라도 역사이야기

-서군교와 파군교

“1988년 총선때 DJ 황색바람은 ‘순리’였죠”

“1988년 총선 때 분 ‘황색바람’(김대중 총재의 평민당 바람)은 어느 의미에선 ‘순리’라고 봅니다. 국민 대다수가 그것에 휩쓸린 것은 그만큼 당위성을 인정해준 것 아닌가요. 그래서 나중에 집권까지 했고요.”

공화당 때부터 민정당에 이르기까지 광주에서 3선(10대~12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귀남(74) 전 의원이 그의 정치인생에 패배를 안긴 ‘황색바람’을 평가한 말이다.

그를 만나는 데 단단히 어려웠다. 지난달 말부터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다가 20여일이 지난 18일야에 연락이 닿았다. 그리고 21일 오전 지인들과 골프를 하러 가기 전에 광주시 북구 신안동 자택에서 한시간여 동안 만날 수 있었다. 예전보다 마른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좋아보였다. 지난 91년 위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거실엔 골프 퍼팅 연습 매트가 깔려져 있었고 곳곳에 책이 쌓여 있었다.

고 전 의원은 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지난달 24일부터 이날 17일까지 브라질에 다녀왔다고 했다.

“물째 딸 은경(42)이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아요. 사위가 삼성전자 남미본부에 근무하거든요. 아내의 철수를 기념해 초청한 것이지요.”



지난 1988년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고귀남 전 의원이 시상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그는 “10대 국회 고등학교 동기인 전남장애인재활협회장 김계운 박사가 도와달라라고 해 후원회장을 맡았다”며 “그것이 인연이 돼 줄곧 장애인 복지에 매진, 장애인 돕기 400만 도민 걷기 대회 개최, 광주시 동문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장애인 종합 복지법 제정 등을 이뤄냈다”고 소개했다. 고 전 의원은 특히 88년 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이끌었으며 1990년부터 2년여 동안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고 전 의원은 1993년 지구당위원장을 그만 둔 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탈당하며 정계를 은퇴했다.

그는 “96년 총선 시 이회창 총재에게 광주·전남에서 몇 사

13대 총선 민정당 후보로 출마 고배 박철 前 全每사장권유로 여당 입문

다른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다. 그는 “큰 딸 유경(44)이는 남편이 의사인데 제주도에 살고, 막내인 아들 형철(39)이는 현대산업개발 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모두 잘 살고 있다”고 말했다.

고 전 의원은 전남대 건축공학과 3학년 때인 1956년 느닷없이 전남매일(80년 언론 통합으로 전남일보와 통합)에 입사, 언론인의 길을 걸었다. 이에 대해 그는 “부모님이 공과 대학 가지 않으면 대학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건축을 전공했지만 도대체 연이 맞지 않았다”며 “때문에 3학년 때 시험을 쳐서 신문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고 전 의원은 대학 졸업후 20년 가까이 지난 1975년에야 하게 된다. 그는 “대학 중퇴라는 이력이 영 신경 쓰였는데 운동권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북학제도 덕을 봐서 이 때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고 전 의원은 언론계에서 승승장구했다. 11년 동안 근무하면서 정치부장, 서울지사장 겸 편집부국장까지 지냈다. 그러다가 1970년 11월 당시 신문의 박철 사장의 강권으로 함께 공화당에 입당했다. 고 전 의원은 “박 사장은 공화당 전남도당 사무국장으로서, 나는 선전부장으로 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김대중·이철승·김영삼씨 등 야당 인사들과 훨씬 친했다”며 “그런데도 공화당에서 고생하니까 야당에서 ‘왜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안 시키냐’며 ‘차라리 우리가 키워줬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약력**
- ▲ 1933년 김진 출생
  - ▲ 광주고, 전남대 건축학과 졸업
  - ▲ (구)전남매일기자·정치부장·편집부국장
  - ▲ 10~12대 국회의원
  - ▲ 88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당시 공화당에서는 서울과 함께 경북도와 전남도를 대단히 중요시할 때였다. 전남도당의 사무국장은 국회의원으로 가는 통로였다. 박 사장은 곧바로 8대 국회의원이 됐으며 박통을 이은 임인재 사무국장도 9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리고 고 전 의원은 사무국장의 자리를 받았고 1979년 10월 10대 국회에 등원하게 된다.

12·12로 국회 해산을 맞았지만 고 전 의원은 1981년에 11대 국회에 민정당 비례대표로 입성하고 12대에는 중선거구제 하의 총선에서 신기하 의원(신민당)과 함께 당선, 광주 동·북구를 대표하게 됐다. 이후 고 전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바뀌고 난 1988년 13대 총선에서 신기하 의원에게, 1992년 14대 총선에서 이길재 의원에게 각각 고배를 마셨다.

고 전 의원은 장애인 복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다.

96년 이회창씨 광주·전남 푸대접 “이들과 함께 할수 없다” 은퇴 결심

람이라도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회창씨에게 당선도 되지 않을 24번인가를 쥐서 단 한명도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다”며 “그 때 ‘아, 이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고 전 의원은 은퇴 후 1998년 조선대 경영대학에 입학, 2001년 ‘노사관계’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이어 일본노동기구연구소에서 1년간 공부를 더한다. 귀국 후에는 휴먼비즈니스센터, 노사협력연구소 등을 세워 노사문제를 연구하기도 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에는 한정회 광주지회장 외에는 모든 공적인 자리를 물러 채 지인들과 어울리며 여생을 보내고 있다. 김계운 박사, 장형태 전 전남지사, 박영철 전 뉴욕총영사, 김양균 변호사, 전도영 변호사, 이균범 전 전남지사, 정공진 전 광주일보 편집국장 등이 그의 골프 친구다.

고 전 의원은 “10여년 정치를 하면서 많은 지인들에게 신세를 졌다”며 “죽는 날까지 이 빚을 갚으려고 지인들과 어울리면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서군교 김유신, 백제 공격때 서약한 곳 파군교 마지막으로 백제군 격멸한 곳

역사가 책에 기록된 것도 있지만, 전설과 지명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격전의 현장에 남은 이야기는 대개 승자 편에서 꾸며진다.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서군교(誓軍橋)와 무안군 몽탄면 청룡리 파군교(破軍橋)는 삼국과 후삼국 말 정쟁이 남긴 땅 이름이다.

서군교는 원래 목교인데 썩게 되자 일명 ‘썩은 다리’로 불렸다. 1935년 신작로가 날 때 콘크리트로 만들어, ‘삼덕교’라 불렀다. 이 다리 곁에 있던 서군교와 관련된 ‘신라흥무왕서군교유허비(新羅興武王誓軍橋遺墟碑)’는 30m 남쪽, 23번 국도와 838번 지방도가 만나는 삼거리로 옮겨졌다.

도로확장과 더불어 2001년 소재지 쪽 165번지로 다시 이전된 높이 2.2m, 폭 66cm 크기의 빗돌은 1921년 김유신(金庾信)의 후손인 김봉수(金鳳洙)가 세웠다. 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유신이 백제군을 칠 때 군사들이 서약한 다리목이 이곳이요, 마지막으로 백제군을 파한 곳이 무안군 몽탄면의 파군다리”라는 것이다.

서군교 근처의 지명으로 건무산(建武山)과 군장산(軍藏山)이 있다. 서북쪽에 있는 함평 주산(主山) 군유니산(郡遊尼山)은 임금과 관련됐다는 뜻을 담고 있다.

몽탄 소재지에서 일로를 쪽으로 811번 도로를 따라 4km 쯤에 파군교가 있다.



함평 서군교유허비(왼쪽)와 무안 파군교 저수지 .

1928년 영화농장에 물을 대기 위해 축조된 당호제(唐湖堤)를 가로지르는 다리다. 이곳은 옛 박곡면 소재지인 양리동 동편으로 나무다리가 설치되어 있다가 1974년 콘크리트로 교체되었다.

저수지가 만들어지기 전 박곡(파군)천에는 두 가지 전설이 전해왔다. 김해김씨 가문에 전해오는 “김유신이 백제의 잔당을 격파한 곳”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후백제 견훤군(甄萱軍)을 대파한 곳”이라는 전설이다.

백제군이 나당연합군에 쫓겨 격파되었다면 636년으로 부흥군(復興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리 곁 대둔산은 노적으로 보이게 했고, 주변에 장문재, 장동(將洞), 당호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한편 ‘몽탄(夢灘)’이란 지명은 “왕건이 꿈에 선몽을 받고 건너 여울”로 알려져 있다. 왕건이 견훤군에 쫓겨 나주 동강면 몽송에서 지쳐 잠들었다. 꿈에 선인이 나타나 강이 말랐으니 빨리 건너 몸을 피하라고 깨워, 무안으로 피신했다. 그가 강을 건너자 다시 물이 차 후백제군의 추격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몽탄은 본디 큰 여울로 대탄(大灘)이다. 큰(大)이 음(夢)으로 변했을 개연성이 있다.승자의 논리로 정해진 지명과 어울리는 이야기 속에서 백제와 후백제가 넘어가는 과정이 두 곳에 겹쳐있다. /김경수(사향도문화진흥원장)

**수능시험 끝!! 이젠, 중국어 시작!!**

수험생 특별반 12월 1일 개강

3개월이면 중국어 된다 (매월 초개강)

문의처: 리틀자이나 中国語学院

TEL: 02-333-9582

**미래불안?**

한의사가 되시면 해결됩니다!

사우스 베이 한의과 대학

www.southbay.co.kr